

전이성 폐암의 외과적 고찰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김대영·박기진·손제문·김혁·지행옥

전이성 폐암의 진단은 치명적이며 절제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1926년 체코슬로바키아에 Divis가 처음으로 전이성 폐암을 성공적으로 수술한 이후 전이성 폐종양에 대해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가 시도되어 왔다. 외과적 절제는 원발성 병소가 완전히 제거되었거나, 폐장이외의 전이는 없고, 폐장의 전이 종양이 모두 절제 가능하여야 하며, 심폐기능 및 전신 상태가 수술에 견디어 낼 수 있는 경우를 수술의 적응으로 행하여져 왔으며 최근에는 조직생검의 목적 또는 약물 치료후 남아있는 종양의 제거에 까지 확대되었다. 5년 생존율에 있어서 원발성 폐암과 별차이를 보이지 않고, 미세전이의 제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수술이 권유 되었고, 생존률의 증가와 사망률이나 합병증 발생률을 낮추는 외과의사들의 노력과 함께 전이성 폐암의 적극적인 수술적 절제는 국내외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이에 저자는 1987년부터 1995년 7월까지 14례를 대상으로 술후 경과를 위주로 조사하였다. 환자들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7명, 여자가 7명으로 남녀비는 같았고 환자의 연령은 21세부터 68세까지로서 평균 연령은 50.9세 이었다. 원발 종양의 병소는 자궁 2명, 대장 2명, 신장 2명, 위 2명, 직장 1명, 피부 2명, 타액선 1명, 사지 1명, 후두 1명이었다. 조직학적 소견으로는 상피 세포암이 11례, 육종 2례, 악성흑종 1례이었다. 상피세포암중에는 자궁에서 원발한 흉모 상피세포암이 1례, 대장의 선암 2례, 직장의 선암 2례, 위의 선암 2례, 신장의 투명세포암 1례, 신장의 이행상피세포암 1례, 경부의 편평상피세포암 1례, 후두에 편평상피세포암 1례가 있었고 육종에서는 자궁의 평활근육종 1례, 섬유육종 1례가 있었고 피부에 악성 흑종이 1례 있었다. 원발성 종양의 발견으로부터 전이성 폐암의 발견까지 기간(Disease Free Interval)은 동시에 발견된 경우가 3례, 12개월 이내에 발견된 경우가 3례, 13개월부터 24개월 사이에 발견된 경우가 2례, 25개월부터 60개월 사이에 발견된 경우가 12례, 61개월부터 44개월 사이에 발견된 경우가 2례 이었다. 전이성 폐암의 발생 장소로서는 우상엽 2례, 우중엽 1례, 우하엽 10례, 좌상엽 1례, 좌하엽 5례이었고 이중 5례는 다발성으로 전이된 경우를 포함한 것이다. 종양의 크기가 2배로 증가하는 시간의 초점은 원발성 종양의 추적 관찰시 전이성 폐암의 발견 즉시 수술에 임하였기 때문에 측정하기 불가능하였다. 수술적 방법은 전이된 암의 완전 절제와 최소한의 폐기능 감소를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설상절제술의 4례, 폐구역 절제술 3례, 폐엽 절제술 6례, 전폐절제술 1례, 조직생검 1례가 있었다. 이중 1명의 섬유육종이 폐로 전이된 환자에 있어서는 설상절제술과 폐엽절제술이 같이 시행되었다. 흉모 상피암이 양측성으로 폐전이된 경우에 있어서 정중 절제술을 시행하여 개흉하였고 나머지 13례에 있어서는 후측방 절제를 시행하였다. 13례에 있어서 폐절제술 후 화학요법을 하였고 7례에 있어서 방사선 치료 요법의 보조적 치료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1례 위암 환자는 조직생검후 2일뒤 사망하였고 수술사망율은 7.1%이다. 추적 관찰 기간은 651개월·환자이었고 평균 50.1개월 이었다. 2일에서 부터 74개월까지 다양하였고 1995년 7월 현재 10명이 추적 관찰중이고 전이성 폐암의 수술후 3명에 있어서 5년이상의 생존 기간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외과적 절제 및 보조적 치료를 함으로서 환자의 생존률을 증가시키고 사망율을 줄임으로서 전이성 폐암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가 권장되어야 되겠다.